

## 솔바스의 오프닝타이틀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텍스트의 의미작용\*

-히치콕의 <현기증>,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 <싸이코>를 중심으로-

The signification of visual text appeared  
in film title sequences of Saul Bass

주저자 : 김은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IT공학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Kim Eu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공동저자 : 김태형

호원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Kim Tae-Hyung**

Howon University, Department of Liberal Arts

교신저자 : 김 건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기록관리학대학원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Kim Ge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Management

\* 본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대상 및 범위

## 2. 분석방법의 이론적 고찰

- 2.1. 연구방법에 대한 의미
- 2.2. 피스의 의미작용 구조
- 2.3. 분석방법의 프로세스
- 2.4. 히치콕의 스타일(Hitchcock's touch)

## 3. 솔바스의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시각적 텍스트 분석과 의미작용

- 3.1. 시각적 텍스트의 의미 분석
- 3.2. 오프닝타이틀의 의미작용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오늘날 오프닝타이틀은 영화감독이 작품에 의도하고자 하는 점을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오프닝타이틀은 영화 속의 또 다른 영화라는 점에서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며, 새로운 홍보 및 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가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이는 관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의 작품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소쉬르(Saussure)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기호학을 넘어서는 찰스 피스(Charles Peirce)의 기호체계를 토대로, 미국 그래픽 디자인의 대가인 솔바스(Saul Bass)가 영화의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부여한 의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영화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중요성과 표현방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미지화된 시각적 텍스트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솔바스는 영화 오프닝타이틀 제작에 디자인적 사고를 활용하여, 즉 선의 형태와 색상의 대비를 통해 오프닝타이틀을 제작한다. 솔바스는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픽 요소와 원리를 기반으로 기호학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구축하여 이미지들이 상호 의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처럼 솔바스는 단순히 타이틀 시퀀스를 표피적인 의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체로서 상호작용하고 연계하여 작용함으로써 함축되어진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오프닝타이틀, 솔바스, 히치콕.

### Abstract

Today, film title sequences can represent the director's intention in a pithy expression. The film title sequence stimulates the spectator's interest in the way that it is another film in a film, and have been a cogent means for the publicity and communication. It is time to seek ways of transmitting, not for a mere communication, but to effectively process contents or to diversely apply motion picture title sequences. This would heighten an effect not only for the communication with the spectator, but also for the its artistic meri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ignification that Saul Bass, a great American graphic designer, invested in the opening title, on the basis of Charles Peirce's the sign system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semiotics typified by Saussure. For this, the research will condu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visual text imaged, appreciating the significance and expression mode of the title sequence notifying the film's beginning and then analysing the meaning in depth.

Bass produced film title sequences applying design thinking: the form of lines and colour contrast. He forms visual image in the semiotic basis of graphic elements and principles and composes 'intersignification' in the composition of image. In this way, Bass's film title sequence does not merely suggest superficial signification, but expresses and addresses a connotative meaning through an interplay in the sign system.

### Keyword

Film title sequences, Sal Bass, Hitchcock.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사전에 영화를 홍보하고 관객을 유인하는 영화포스터나 영화예고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멀티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다양한 수단 및 표현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김길훈, 김진, 2007 ; 김진, 2007). 이와 더불어,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타이틀의 중요성과 의미작용도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영화가 줄 수 있는 놀라움과 재미는 첫 장면에서 거의 결정된다”(문경아, 2006)고 말할 정도로, 또한 마틴 스콜세지(Martin Scorsese) 감독이 영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를 ‘영화 속의 영화’(a film within a film)라고 표현할 정도로(오호준, 2007), 오프닝타이틀은 영화감독이 작품에 의도하고자 하는 점을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오프닝타이틀은 영화 속의 또 다른 영화라는 점에서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며, 새로운 홍보 및 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가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김진(2012)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관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의 작품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해당 영화보다 더 긴 여운과 감동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소쉬르(Saussure)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기호학을 넘어서는 찰스 퍼스(Charles Peirce)의 기호체계를 토대로, 미국 그래픽 디자인의 대가인 솔바스(Saul Bass)가 영화의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부여한 의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영화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중요성과 표현방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미지화된 시각적 텍스트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분석방법의 이론적 틀인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퍼스의 기호체계에 따른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 히치콕의 세 편의 영화에 대한 오프닝타이틀을 분석하여 그 의미작용과 구조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각적 텍스트에서 추출된 이미지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 및 범위

일반적으로 미국의 1940-1950년대 영화 타이틀은 영화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타입페이스(typeface)를 사용하며, 단순히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스텝들의 명단을 나열해서 보여 주는 정도였다. 이후 영화계에 입문한 솔바스 덕분에, 영화의 오프닝타이틀은 혁신적인 기법들이 도입되고,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솔바스는 뉴욕에서 1936-46년까지 디자인 공부와 프리랜서로 활동을 겸하다가 1946년 영화산업의 본고장인 LA로 이주하여, 광고 대행사인 블레인 톰슨에 근무하면서 주로 영화광고 디자인을 담당했다. 영화광고계에 입문한 그는 타이틀에 색조와 형태를 부여하여 영화의 컨셉과 이미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새로운 타이틀의 표현과 제작 방법을 선보인다. 박효신(2008)의 분석에 따르면, 솔바스의 타이틀은 ‘상징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간단 명료한 타이틀 형식에 움직임과 음악을 활용하여 대비의 효과를 창출하고 놀랄만한 감성을 표현한다.

솔바스는 <카르멘 존스>(Carmen Jones, 1954)을 시작으로 <카지노>(Casino, 1995)에 이르기까지 총 53편의 영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를 담당했는데, 본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은 스릴러 영화이다. 스릴러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스펜스를 조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오프닝 시퀀스도 의미심장한 은유적 기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의 전체적 흐름을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솔바스가 참여한 스릴러 영화중 서스펜스의 거장인 히치콕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세 작품, <현기증>(1958),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1959), <싸이코>(1960)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히치콕의 대표적인 세 작품을 통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표현방법과 유형을 토대로 시각적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후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중요성과 그 의미작용에 천착하고자 한다.

## 2. 분석방법의 이론적 고찰

### 2.1. 연구방법에 대한 의미

영상은 빛에 의해서 모든 상(象)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처럼 빛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상은 넓게는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펼쳐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정보를 제시하는 매체이다(김석태, 2003). 또한 영상은 일반 언어에 비해 다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적 상징과 의미작용이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러한 상징과 의미작용의 연구로서 기호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호학에서 양대축을 이루는 소쉬르와 퍼스는 기호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기호학자들이다.

소쉬르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두 요소가 결합하여 기호를 구성하는 이원론적 모델을 주장하는데, 기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체적 요소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말하며, 기의는 내재되고 함축된 의미를 이야기한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연적이나 필연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기호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가 상호연결 관계 즉 의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박영원, 2003).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가 상호작용하여 이미지를 대신하여 기호로 존재할 수 있으며, 기표와 기의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김치수 외, 2006), 기호의 상관적 의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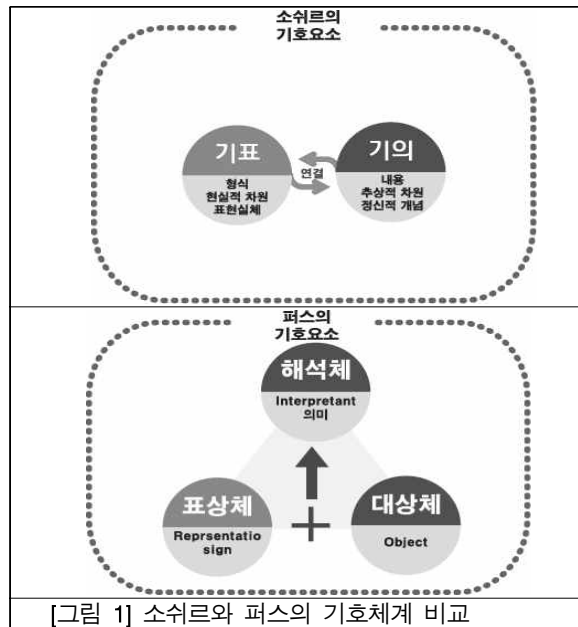
칸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또 한명의 대표적 학자인 퍼스는 사고와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며, 소쉬르의 이원론적 모델을 넘어서는 삼원론적 기호체계를 제시한다. 퍼스는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를 표상체(혹은 기호체), 기호체가 대신하는 대상체, 대상과 기호가 합쳐져 의미를 생산하는 해석체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기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연관되면서 삼원적 관계를 형성하여 의미작용을 한다(진경아, 2008). 여기서 표상체는 기호의 발생에서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상체는 표상체가 지시하는 대상물에 해당하고, 해석체는 기호구조의 내부에서 표상체를 대상체로 이끄는 해석 작용이다. 아래 [표 1]은 퍼스의 기호학 구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호구조	내용
표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호체라고도 함</li> <li>기호 발생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임. 다른 것과 대립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순수함에서 존재함</li> <li>품질 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로 구분</li> </ul>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상체(기호체)가 지시하는 대상물 혹은 표상체가 나타내는 대상물</li> <li>사물 그 자체와 그 사물이 다른 사물과 맺고 있는 공존관계를 통해 발생함</li> <li>보통 기호의 의미로 연구로 되어지는데 지시된 대상들과 지시 관계에 기초하여 기호들을 확정함</li> <li>표상체 보다는 좀 더 복잡함.(이유:기호에 의해 표상되는 대상체인 직접적인 대상체와 해당기호와 독립적으로 기호를 생산하는 역동적 대상체로 구분되기 때문)</li> </ul>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호를 해석하는 인격적인 주체를 의미하는 해석자가 아니라 주어진 표상체로부터 촉발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는 의미효과임</li> <li>기호구조의 내부에서 기호체를 대상으로 이끄는 해석 작용</li> <li>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기호를 접하게 될 때 표현되는 관념을 말함</li> </ul>
--

[표 1] 퍼스의 기호

아래의 [그림 1]처럼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을 비교한다면, 소쉬르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기호를 동기화된 기호와 자의적 기호로 나누었고, 퍼스는 기호자체를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로 세분화하여 강조한다. 따라서 퍼스의 기호체계 분석은 소쉬르가 제시한 기표와 기의적인 분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의미작용을 담고 있다(박영원, 2003).



[그림 1]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체계 비교

## 2.2. 퍼스의 의미작용 구조

삼원론적 관계에서 퍼스는 대상체를 의미론에 입각하여 세 가지 구성요소,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한다.



[그림 2] 퍼스의 기호의 의미작용

도상은 기호자체(표상체)가 대상(대상체)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대상과 유사하면 도상기호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머리 주위에 둥근 광채를 띤 여인을 보면 성모마리아를 연상하는 경우이다. 지표는 대상체와 실존적으로 연결을 이루는 기호로, 도상기호와 달리 그 대상체와 유사성을 가지지 않지만 그 대상과 물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를 대상에게 기울이게 한다. 예컨대,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관념이나 기호로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유사성이나 연관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인 교통신호체계가 해당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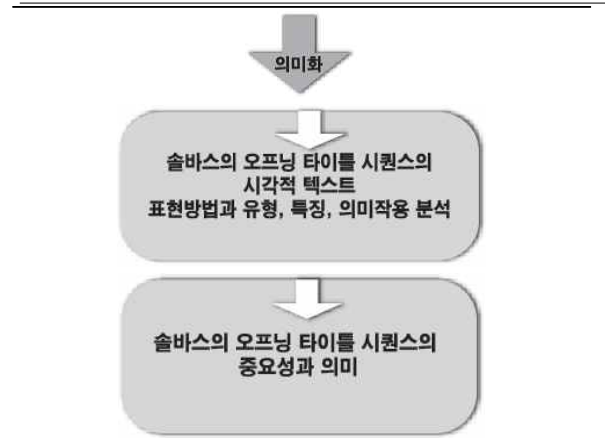
기호	대상 및 의미
도상	재현적인 것, 시각적, 청각적, 지시적-[유사성]
지표	현실적인 대상물이나 경험한 사실을 지시, 주목, 반응하게 하며, 현실적 감각을 일깨워줌, 지표와 기의 결합의 원인관계, 물리적인 힘 등- [인접성]
상징	습관, 규약성 의거, 일반적, 법적적 규범성 의하여 대상표의- [관념적 약속]

[표 2] 퍼스의 기호와 대상

따라서 본 논문은 퍼스가 제시한 기호의 의미작용을 토대로 히치콕 영화 속에서 솔바스가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서 보여주는 시각적 텍스트들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대상과 상황에 적용되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3. 분석방법의 프로세스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의미작용은 퍼스 기호 해석체의 기본적인 틀을 토대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림 3]은 본 논고의 대한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기호로서의 의미작용과 본 논문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도형화한 것이다.



[그림 3] 오프닝타이틀 의미작용과 결과분석 매트릭스

분석은 먼저 솔바스의 오프닝 시퀀스를 의미론측면에서 도상, 지표, 상징으로 분리하여 기호로서 의미작용을 분석한다. 기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상은 영상을 이루는 표현적 차원 즉 표의기능을 하는 그래픽요소(색채, 선, 타이포그래피, 재질, 화면의 크기 등)가 도상기호라 할 수 있다. 지표는 표현된 도상기호의 실질적이고 물리적 기능으로 몰입과 감정에 자극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그래픽 구성 원리와 조형문법이다. 예컨대 도상기호를 구성하고 조절하며 기능을 부여하는 운동감, 시간, 변화, 통일, 대조, 대비, 대칭, 배치, 분할 등이 지표기호에 포함된다. 상징은 도상과 지표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적 측면과 정서적 영향을 받는 관념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들에서 전달되는 주요 메시지와 영화장르의 특성상 전달되는 정서적 이미지를 상징 기호로써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가 스릴러 영화의 오프닝타이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이미지에 대한 항목들 즉 스릴러 영화에 대한 특징과 감정적 요인 '무서움, 놀람, 암시, 괴기함, 혐오, 불안, 서스펜스' 등의 표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 3]은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기호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호	대상
도상	그래픽 요소-색채, 도형, 타이포그래피, 재질, 화면의 크기 등
지표	그래픽 요소 원리-운동감, 시간, 변화, 통일, 대조, 대비, 대칭 등
상징	영화 이미지에서 해석되어진 주요 정서적인 요인과 도상과 지표기호의 상호연계 이미지 등

[표 3]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기호

## 2.4. 히치콕의 스타일(HitSchcock's touch)

본 장에서는 히치콕이 1958년-1960년에 발표한 <현기증>(1958),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1959), <싸이코>(1960), 3편의 오프닝타이틀 시퀀스를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과 정서적 측면을 이해한다.

### 2.4.1. <현기증>(Vertigo)

“영화의 구성에 있어 모든 요소들이 치밀하게 적용되어 영화사에서 가장 탄탄한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안정원(2012)의 분석처럼, <현기증>은 히치콕이 가지는 모든 장점을 다 갖춘 작품이다. 우선, 히치콕과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해온 버나드 허만(Bernard Herrmann)이 음악을 담당했고, 인상적인 오프닝 시퀀스를 선보이는 솔바스가 협업하며, <나는 결백하다>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한 로버트 버크스(Robert Burks)의 임팩트한 촬영 그리고 당시 할리우드의 톱스타인 제임스 스투어트(James Stewart)와 김노박(Kim Novak)이 주연을 맡은 <현기증>은 시종일관 고소공포증을 연결고리로 흥미와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등근 형태의 원을 통해 매혹적이고 신비스런 이미지를 오프닝타이틀에 선보이며, 영화는 시작한다. 동료 경찰의 추락사로 인해 병적인 고소공포증을 얻게 된 주인공 형사 스카티(Scottie)는 경찰관을 사직하고 사립탐정 일을 하게 된다. 이후 친구로부터 그의 젊은 부인 메들린(Madeleine)을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되지만,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 여인의 자살을 막지 못한 주인공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온 그는 죽은 여인과 너무나 닮은 여인을 만나게 되며 강박적으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이후 이야기는 점점 미궁에 빠지며 반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처럼 <현기증>은 고소공포증, 죄의식, 성적욕망, 강박관념, 정신장애 등의 주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당시 미국사회의 중산층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담아낸다.

### 2.4.2.<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North by Northwest)

영화는 수직의 높은 빌딩, 빌딩에 비치는 택시들, 계단을 바빠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번잡하고 복잡하여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뉴욕의 도시전경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광고회사 사장인 유능한 손힐(Thornhill)은 어느 날 자신을 국가 비밀 정보원인 캐플런(Kaplan)이라고 여기는 악당들의 추적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계속된 추적

에 쫓기던 손 힐은 이브 캔달(Eve Kendall)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녀 역시 첩자이다.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손 힐은 오히려 영웅이 되어 악당을 처치하며, 캐플런이라는 인물이 정부가 만든 가공의 인물임을 알게 된다.

영화 초반부에는 어떠한 정보도 관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관객에게 의문만을 제시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인공이 납치되고, 왜 캐플런이라는 인물로 오해받는지 궁금증만 증폭시키며 극적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캐플런이라는 존재하지 인물, 즉 맥거핀(MacGuffin) 효과를<sup>1)</sup> 통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치밀한 연출로 숨 막히는 긴장감을 유지한다. 예컨대, 대각선구도의 장엄한 유엔건물과 익스트림 미디엄(extreme medium) 쇼트로 처리된 도망치는 손힐의 모습은 시각적인 극대비로 표현되어, 주인공의 어려운 상황과 심리적 불안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옥수수 밭에서 펼쳐지는 경비행기 공격 장면은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얼룩기능을<sup>2)</sup>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후반부 장면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 산(Mount Rushmore)에서의 추격 장면도 놓칠 수 없는 명장면이다.

### 2.4.3. <싸이코>(Psycho)

로버트 블로흐(Robert Bloch) 원작인 <싸이코>는 당시 관객에게 가히 '쇼크'라고 할 만한 새로운 유형의 공포영화를 선보인다. 이전의 공포영화가 초월적 존재로서의 흡혈귀나 드라큘라 등의 괴물을 내세웠다면, 이 영화는 이전의 괴물을 현실에 존재하는 자아 분열적인 인간으로 대체하며, '슬래셔 무비'<sup>3)</sup>의 원조가 된다. 즉 고전 공포영화가 초자연적인 괴물이 주로 등장하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억압이나 두려움이 공포를 자아내는 형식을 취한다면, <싸이코>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초점을 두며, 사이코패스 살인마와 같은 병리학적인 인간을 다룬다.

강렬한 명암대비인 흑백의 무채색 배경으로 시작

1) 맥거핀 효과는 영화 초반부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결말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속임수 혹은 미끼'와 같은 것이다. 즉 관객의 기대심리를 배반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최고로 극대화하는 서스펜스 장치이다.

2) 얼룩 기능은 자연스런 미장센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등장함으로써 '바람과 반대로 불기 시작하면' 상황이 더욱 기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치이다. 예컨대, 이 장면에서 농작물이 없는 허허벌판인 옥수수 밭인데, 갑자기 농약 뿌리는 경비행기의 출현과 공격이 얼룩기능에 해당된다.

3) 슬래셔(Slash)는 '칼로 베고 자르다'라는 용어로서, 칼이나 톱 등의 살상무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난도질하는 사이코패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쇄 살인마를 다룬 영화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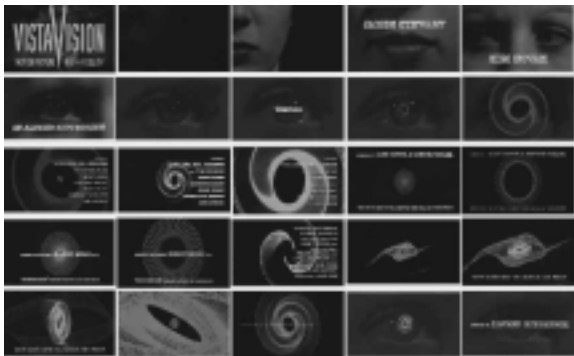
하는 <싸이코>는 돈과 연관된 인간의 일탈된 욕망과 욕심을 다룬다. 주인공 노먼은 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애정으로 인해 10년 전 그녀와 계부를 살해하고, 마더 콤플렉스라는 다중인격의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노먼은 어머니화되어 행동하기도 하며, 내면에서 현실의 자신과 10년 전의 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비정상적인 애정과 집착으로 연쇄적 살인을 행하게 된다.

### 3. 술바스의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대한 시각적 텍스트 분석과 의미작용

#### 3.1. 시각적 텍스트의 의미 분석

##### 3.1.1. <현기증>

<현기증>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구성요소는 실사 이미지와 그래픽 요소인 원형 형태의 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글꼴)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의 처음 장면은 실사 이미지로 여자의 입술과 눈을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 close-up)을 통해 뭔가를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주의를 살피는 듯한 클로즈업된 눈동자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적 긴장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눈동자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결합되어 눈 모양을 형상화하며, 점진적으로 진출하면서 타이포그래피와 겹치게 된다.



[그림 4] <현기증>의 오프닝타이틀 장면

표현되어진 선들은 원형과 회전이라는 시각적 표현방법으로 '현기증'이라는 영화제목을 인지시키며 영화의 이중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지켜보고 있는 눈, 원형형태인 꽃다발과 메들린의 파리 모양으로 울린 머리 등을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으로 시각화하였다. 타이포그래피는 이중적 아웃라인 세리프가 있는 둥근 글꼴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가독성이 부족한 글꼴을 활용하고 있다. 선의 형식은 처음에 불규칙적으로 진행되지만 이후 규칙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

다. 한석우(1991)의 분석에 따르면, 불규칙과 규칙이라는 대조와 대비는 강렬한 자극이나 흥미를 일으키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며,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중요한 물리적 기능이다.

오프닝타이틀 메인색상은 검정(black/N1.5)으로 영상의 전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검정색이 내포하는 특징은 억제되고 압박하며 엄숙하고 심원한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슬픔, 우울, 죽음을 의미하며, 공포를 느끼게 하고, 비밀, 공포, 악을 암시하는 색상(김훈철, 장영렬, 1991)으로 표현되고 있다. 서브색상은 보라(P/V)와 밝은파랑(B/L)의 색상 계열을 활용하였으며, 강조의 색상으로 흰색이나 밝은 파랑, 보라색상을 조합하여 배색하고 있다. 보라(P/V)색상은 사람들에게 따라 극단적인 선호도를 보여준다. 보라색은 '고상하며 고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IRI 색채연구소, 2013), 병을 나타내는 색이며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는 신체의 기능 부전을 나타내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광기, 불안, 죽음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며, 자기 치료로 작용하는 색상이기도 하다(스에나가 타미오, 2003). 파랑색상의 의미는 이지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색상으로(IRI 색채연구소, 2013) 또는 우울한 상태, 고독한 기분에 빠져 의욕이 없는 색상으로(스에나가 타미오, 2003)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색상은 영화 속에서 스카티가 메들린에게 느끼는 매력과 사랑 그리고 메들린의 자살로 인한 스카티의 내면적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프닝타이틀에서 사용된 색에 대한 배색은 극과 극의 명도대비로 차갑고 딱딱한 극단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선의 형태와 색상의 특징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토대로 [표 4]는 도상기호의 대상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의미표현
도상	선	가는 선과 원형		애매모호함, 불명확성, 환영,
	실사	눈, 입		관찰, 지켜봄, 두려움, 긴장감.
	타이포	이중 아웃라인 고딕		복잡, 가독성부족.

색상배색	P/Dk+W		죽음, 슬픔, 절망, 무기력, 우울, 정신적 장애, 환영.
	P/Dk+P/V		
	Bla+P/V+B/DK		
	Bla+W+B/L		
	Bla+B/L+P/V		
	Bla+B/L		
	Bla+P/L+P/V		

[표 4] 오프닝타이틀의 도상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지표적 측면에서, 도상에 대한 원인관계, 물리적인 힘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의 표현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대상	의미표현
지표	방향성과 리듬		어지러움, 환상, 파문 확산, 혼돈.
	변화	미디어에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긴장감, 기대감, 호기심.
			호기심, 긴장감, 흥미유발.
	중첩		어지러움, 복잡함.
	반복		암시적 호기심, 내용유도.
	대칭/비대칭		공감각 역동감, 호기심.

[표 5] 오프닝타이틀에 대한 지표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선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전하여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파문처럼 화면의 중앙으로부터 주변으로 무엇인가가 확산되며 전개된다. 이 파문은 결정적이며 중심점을 가진 표적과 같다(클라인트, 1994). 마치 무언가 지켜보고 관찰하는 눈동자에서 시작하여 영화내용이 전개되듯 시각적으로 플롯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있어 전반부와 후반부는 실사로 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내러티브의 구조화를 피하여 영화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영상구조방법은 영화의 이해와 내용에 대한 기억, 영상에 대한 흥미유발과 감성호소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구문법의 원리이다(송민정, 2006).

기하학적이고 가느다란 선은 대부분 타이틀 장면

에서 화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방사되며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변화와 리듬으로 인접하여 다중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무질서 안에서 통일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화면의 중앙을 중심으로 시종일관 회전과 반복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칫하면 지겨울 수도 있는 장면을 크기의 변화와 각도의 변화, 그리고 리듬감을 활용하여 흥미와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영화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에 수월한 기능이다. 또한 도상기호를 이중적으로 중첩하거나 겹침으로써 영화에서 표현하고자한 메시지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내면을 의미하고 있다. 화면구조 또한 대칭과 비대칭의 원리를 활용하여 지루함을 억제하고 호기심과 공간적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기증>에서 선과 색상은 반복과 변화의 원리로 인접하여 영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현기증>의 상징기호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관념적 정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플롯의 주요 메시지와 주제에 대한 해석으로 고소공포증, 한 여인에 대한 관찰과 사랑하는 여인의 자살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죄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죄의식은 꿈속과 현실에서 환영과 혼돈을 나타나며, 진실을 속이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드러내는 등 사건을 반전시켜 해결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방법은 선과 색상으로 회전이라는 방향성과 중첩 그리고 변화라는 물리적 작용으로 인하여 더욱 더 영화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회전하는 선, 돌출되어 회전하는 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으로 중첩하여 관념적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의미작용은 어지러움, 고소공포, 죄의식, 성적욕망, 강박관념, 두려움, 관음증(관찰, 지켜봄), 음모, 속임수, 은폐, 반복, 순환의 의미를 창출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색상은 장면이 진행되면서 변화라는 원리를 활용하여 영화의 이미지인 무기력, 우울, 침묵, 절망, 자살, 반전, 환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정서적이며 감성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대상	의미표현
상징	회전하는 선의 방향 돌출하는 선의 방향		고소공포, 어지러움, 죄의식, 성적욕망, 강박관념, 두려움, 관음증(관찰, 지켜봄), 음모, 속임수, 은폐, 순환, 무기력, 우울, 침묵, 절망, 자살, 반전, 환영, 정신적 장애.
	장면의 반복		
	선과 색상변화 화면의 크기변화		
	대상들의 상호중첩		
	선들과 타이포 배열 대칭		

[표 6] 오프닝타이틀의 상징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 3.1.2.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요소는 사선과 수직선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도형, 화면의 전체를 채운 클로즈업된 빌딩건물, 계단을 분주하게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산세프리체의 대문자의 타이포그래피로 장면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계열과 흰색, 회색 톤의 색상으로 배색하고 있다.



[그림 5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 오프닝타이틀 장면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의 도상기호는 선과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색상, 극사실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은 사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불안함, 긴장감, 역동감, 불균형을 조장한다. 세로 형태인 수직선은 긴장된 조용함과 억눌려진 역동감을 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클라인트, 1994). 사선과 수직선들이 교차하여 면을 형성하고 동시에 입체적 시각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수직선과 사선의 조합으로 형성된 면은 그리드(grid)4)라는 조직화된 조형의 틀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그리드를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그리드에 배열하여 오프닝타이틀 장면을 유지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산세리프체인 대문자만을 활용하여 도회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리드 형식을 이루고 있는 화면이 엷어지면서 빌딩의 형태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조작은 조직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위한 그리드의 역할을 빌딩이 대신하고 있다. 이것 또한 그리드의 이미지인 계획적 조직적임을 빌딩으로 대체하여 의미를 극대화 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면색인 녹색(G)은 부드러운 과장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감과 부르조아를 상징하는 색상이다(스에나가 타미오, 2008). 녹색(G)과 흰색(W)을 배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한 것이며, 회색(Gr)은 우울함과 답답한 이

4) 수평 수직선을 그어 만든 일종의 조직 또는 골격이라고 정의하며, 조형의 구성요소나 레이아웃들을 서로 융합시켜주며 디자인의 질서를 부여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부여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미지가 연상되는 색상이다(김학성, 1995). 그리고 빌딩과 사람들에 대한 극사실의 움직임은 영화배경이 되고 있는 뉴욕도시의 바쁜 사회생활과 도시의 답답함,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다음 [표 7]은 선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색상의 심리적 연상되는 이미지를 토대로, 도상기호에 대한 정서적 의미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의미표현
선	사선		불안함, 긴장감, 역동감, 불균형.
	수직선		복잡함, 불안감, 긴장감.
도상	빌딩과 자동차		복잡함, 불안감, 긴장감.
	뉴욕사람들		도회적 단순함, 강렬함.
타이포	산세리프체 대문자		자연스러움, 편안함, 부드러움.
색상 배색	G+W		우울함, 답답함.
	Gr+W		

[표 7] 오프닝타이틀의 도상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도상의 대상으로 지표는 방향성과 리듬, 중첩 그리고 교차와 변화, 반복과 대칭이라는 물리적 기능으로 기호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화면의 대각선 구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불편함 혹은 불안을 조장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대각선 구도를 통해 관객은 등장인물과 분리된 감정을 느끼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마리아 니콜라예바 외, 2011). [표 8]는 지표기호의 대상과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대상		의미표현
방향성과 리듬		불안함, 긴장감, 역동감, 억누름, 불균형.
		긴장감, 조용함.
중첩		사라짐과 드러남
교차		계획적, 조직적, 과학적.
변화		역동감.
		역동감, 긴장감.
반복과 대비		역동감, 긴장감, 유사성.

		주목성.
대칭		정리됨, 딱딱함, 긴결함.
		

[표 8] 오프닝타이틀의 지표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지표대상과 대상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닝타이틀 시퀀스는 총 1분 54초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퀀스는 명확하게 3가지 화면으로 조합되어 있다. 대각선 방향으로 한곳을 향해 움직이며 방향성과 리듬감으로 긴장감, 불균형,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교차라는 의도적 기능을 활용하여 원근감을 보여 주는 그리드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장면은 40초가량 그리드 형태의 화면을 유지하며 마치 배경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움직임 없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녹색의 그리드 위에 타이포그래피는 상/하를 기준으로 하여 대칭을 이루면서 화면중앙으로 움직인다. 또한 타이포그래피는 그리드 사선 방향으로 배열되어 원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타이틀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드 화면은 점점 사라지면서 도시의 빌딩이 오버랩 되어 나타난다. 이 화면은 43초가량 정지되는데 타이포그래피가 전 단계에서 표현되어진 움직임으로 빌딩형태의 대각선 구도를 형성하며 화면에 배열된다. 이것 또한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0.6초의 시간을 유지하며 가독성과 주목성을 높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 오프닝타이틀 지표는 불안함, 긴장감, 역동성, 억누름, 불균형, 긴장된 조용함, 사라짐, 드러남, 계획적, 조직적, 긴장감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하는 상징기호는 [표 9]에서 살펴 보듯이 선과 타이포그래피, 색상 그리고 극사실적 이미지에 방향성과 리듬, 중첩, 교차와 변화, 반복과 대비의 원리로 상호작용하여 관념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선은 사선과 수직이라는 방향성, 그리고 선이 형성되는 위치와 간격의 변화에 의해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영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선과 선이 결합하고 교차하여 또 다른 형태를 생성하고 있는데, 예컨대 도시의 빌딩을 시각화 하거나 그리드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계획적이고 조작된 사건 진행과 도회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극사실 이미지는 정지와 움직임이라는 극적대비와 변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영화에 대한 흥미로움과 기대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의미는 주인공의 어려운 상황과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색상은 주로 대조와 대비의 원리로 조합하여 의미를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암울함을 의미하는 회색과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의미하는 녹색은 상반된 이미지로 영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기 위한 그리고 자연적이고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극적대비와 대조는 움직임이 없는 스틸이미지처럼 보이던 빌딩과 유리벽에 설 새 없이 투영된 자동차들에 움직임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작용은 리듬감을 피하여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리듬은 메시지를 구축하고 전달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마지막 타이틀 장면에서는 도시의 분주함과 바쁜 뉴욕생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단에서 분주하게 내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 사선으로 보여지는 계단 손잡이 등 이러한 요소는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케 하는 페이지터너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호들의 상호작용은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서스펜스와 애매모호함 그리고 아이러니와 불안함, 뉴욕이라는 분주함과 답답함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화면가득 매운 빌딩과 자동차의 계속적인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변화로 뉴욕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상징기호는 그래픽요소와 물리적 조작 특히 변화와 극적대비 그리고 대각선 구도를 활용하여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호기심, 긴장의 극대화, 속임수와 은폐, 살인과 불안, 거짓, 위장, 반전, 아이러니, 답답함, 복잡함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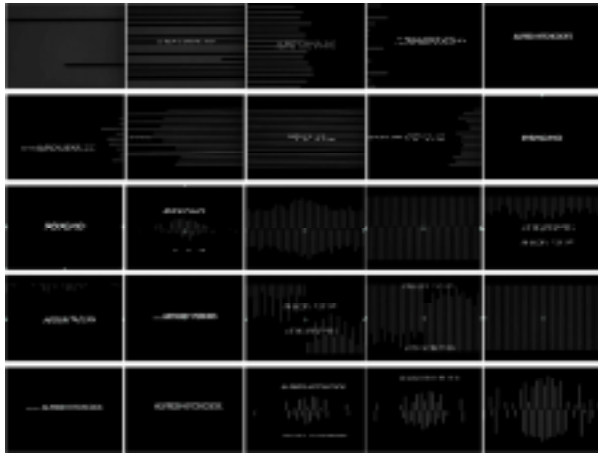
	대상	의미표현
상징	선과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성	호기심, 긴장감, 속임수, 계획적, 은폐, 살인, 반전, 불안, 거짓, 위장, 아이러니, 답답함, 복잡함.
	기하학적 도형과 극사실 이미지의 극적대비 거대한 건물과 건물표면에 비치는 자동차	
	선의 교차와 공감각	
	건물과 그리드 중첩	
	색상과 변화	

[표 9] 오프닝타이틀의 상징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 3.1.3. <싸이코> (1960)

오프닝타이틀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흑백의 무채색의 배경과 일정한 굵기를 유지한 선 그리고 명쾌한 산체프리체의 타이포그래피 대문자로 강

한대비와 단순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달되는 이미지는 강렬함과 동시에 이미지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사이코> 오프닝타이틀 장면

표현된 선은 일정한 수평과 수직을 이루면서,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혹은 엄격한 이미지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굵기가 일정한 선은 이미 계획된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특성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표 10]은 도상 측면에서 선과 타이포그래피, 색상에 대한 특성과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의미표현
도상	선	일정한 굵기의 선	조용함, 차가움, 확실함, 엄격함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계획성.
	타이포	산체프 리체 대문자	도회적 단순함, 강렬함.
	색상	Bla+W+gr Black White	흥분, 긴장감, 서스펜스. 범죄, 서스펜스, 강한 억압, 폐쇄적. 마음의 평화, 구원 치료, 개방적.

[표 10] 오프닝타이틀의 도상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고명도와 저명도의 강한 대비로 구성되어진 검정과 흰색은 단순함과 모던함으로 도회적 이미지를 상징한다(IRI색채연구소, 2013). 검정색은 외부의 강한 억압이나 정형화된 틀에 저항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어 '폐쇄적이다'(스에나가 타미오, 2008)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검정색과는 달리 흰색은 순수함이나 깨끗함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 구원이나 치료의 의미로 또는 '개방적이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검정색과 흰색에 대한 배색은 극

한적인 대비와 대조를 형성한다. 스에나가 타미오(2008)는 이러한 검정색과 흰색의 배색은 긴장감을 가져다주며 흥분을 하게 한다고 하여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전달하는 배색이라고 언급한다.

다음 [표 11]은 지표대상인 방향성과 분절, 대비, 변화, 반복,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요소들의 특징과 정서적 이미지를 토대로 도출된 의미에 대한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의미표현
지표	방향성 좌/우 상/하		목적, 노출, 밝혀냄, 역동성.
			목적, 은폐, 숨김, 역동성.
			목적, 노출, 밝혀냄, 역동성.
			은폐, 목적, 숨김, 역동성.
	분절/해체		부서짐, 깨짐, 단절, 사라짐.
	대비		강함, 극적임.
	결합		나타남, 해결, 확실함, 소통.
	변화		긴장감, 기대감, 흥미, 무질서, 산만.
	반복		정리, 안정감, 기억효과, 유사성, 순환.
	대칭/비대칭		극적임, 강함, 반전.

[표 11] 오프닝타이틀의 지표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사이코> 또한 선은 물리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방향성의 특징은 목적지시와 단서를 제공한다. 선의 방향은 수직과 수평적 특성을 포함하며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배열하거나, 또는 서로 교차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제공한다. 또한 역방향의 움직임으로 시각적으로 대립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방향

과 역방향에 대한 방향성의 대립적 관계, 선의 길이에 대한 분절과 단절에 대한 관계는 수차례 '변화와 반복'이라는 질서원리를 활용하여 통합된 유기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흐름은 질서를 만드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오병권, 1999). 유기적 흐름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서 화면의 중앙부분으로, 장면은 1분 20초 동안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규칙적이며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갖는 그래픽 요소는 무질서하거나 산만하게 보이는 않는 이유가 있다. 표현된 움직임은 속도, 강도, 순서 등이 서로 연계하여 만들어 내는 '대칭적' 원리 덕분이다. 대칭은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고 이러한 조형원리를 통해 장면에 대한 반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복적 영상 구조는 시각적 미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개연성을 제공하여 영상에 대한 컨셉을 구성하고 있다. 기억의 효과, 분위기 조성, 유사성, 이념과 같은 것을 결합시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스테판 샤프, 2008).

<싸이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도상과 지표에 대한 의미는 명확성과 유연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반된 원리를 활용하여 의미가 작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여 상징하기도 한다. 예컨대 분절과 결합, 대칭과 비대칭, 그리고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의미화하여, 슬바스는 <싸이코>의 주제에 맞는 이중적 내면과 심리적 변화의 이미지를 오프닝 타이틀을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

[표 12]는 <싸이코>의 상징기호를 정리한 것이다. 이중적 성격 장애인의 연쇄 살인과 '슬래셔 무비'라는 영화의 특징을 상징기호에서 고스란히 영화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선이나 타이포그래피를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듯한 또는 조각조각 단절하거나 분리해체하여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해체나 분절되어 사라진 타이포그래피나 선은 다시 '조합'되거나 '결합'되어 완전한 형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조와 대비'는 <싸이코>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상징기호이다.

또한 극적대비는 조용함, 차가움과 확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선과 단순함과 강렬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타이포그래피 움직임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화의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과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성과 단절과 해체 그리고 결합을 통해서 충돌, 반전, 이중적 성격, 불안 등 영화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극적대비와 반복'의 원리를 활용하여 주요한 플롯에서 제공하는 호기

심, 긴장감, 속임수, 은폐, 살인, 환영, 거짓, 위장 등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대상	의미표현
상징	선의 방향성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성	관음증(관찰, 지켜봄), 충돌 호기심, 긴장감, 속임수, 은폐, 살인, 반전, 이중적 성격, 불안, 환영, 거짓, 위장.
	선의 단절/해체/결합 타이포그래피의 단절/해체/결합	
	선의 위치변화 타이포그래피 위치변화	
	색상의 대비 선과 타이포그래피의 움직임의 대비	
	장면과 그래픽원리반복	
	선의 길이와 위치, 방향구도 대칭/비대칭	

[표 12] 오프닝타이틀의 상징대상과 정서적 의미표현

### 3.2. 오프닝타이틀의 의미작용

퍼스의 분석틀을 토대로,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의미작용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상 기호인 선, 타이포그래피, 색상의 그래픽요소와 지표 기호인 반복, 변화, 대비, 대칭과 비대칭, 방향성에 의해 작용하고 조절되어 기호들의 의미가 상충하고 함의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러한 의미작용에서 상징기호인 영화의 관념적 개념과 이미지는 상호 작용하여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기호체를 구성하고 있다. <현기증>의 시각적 텍스트는 주로 애매모호함, 혼돈, 어지러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북서서로 기수를 돌려라>의 시각적 텍스트는 답답함, 복잡함, 아이러니, 긴장감, 불안함이 가득한 이미지를 시각화한다. <싸이코>의 시각적 텍스트는 무질서와 질서, 분절과 충돌, 결합과 융합, 불안, 해체 등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였다. 아래 그림들은 위에서 분석된 삼원적 기호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표현을 집약시킨 도형이다.

<현기증>에 있어 도상과 지표 그리고 상징의 기호와 의미작용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오프닝타이틀의 기호는 [그림 7]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타이틀 시퀀스는 기호에 대한 의미작용에 있어 어지러움과 긴장감, 정신적 장애, 호기심, 심리적 갈등, 환영 등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오프닝 타이틀은 영화의 내용이 나 주제 또는 플롯에 있어 주요 사건을 내포하며, 영화에 대한 특징을 시각적 그래픽요소와 원리의 작용으로 영화 <현기증>의 특징과 상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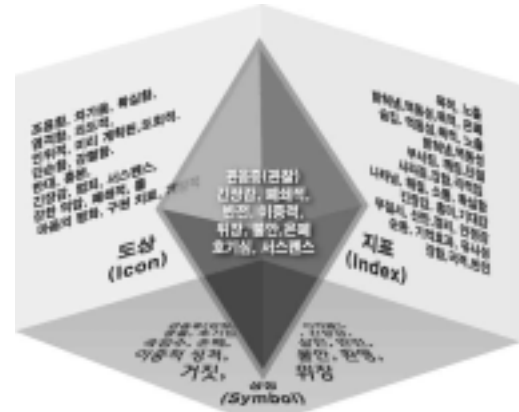
[그림 7] <현기증> 오프닝 시퀀스기호에 대한 의미작용과 이미지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의 오프닝타이틀의 기호체는 도상, 지표, 상징기호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의미작용을 통해 도시의 답답함과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스릴러 장르의 특징인 서스펜스, 긴장감, 위장, 은폐, 계획적, 불안 등 기호들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북북서로 기수를 돌려라>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기호에 대한 의미작용과 의미

<싸이코>의 오프닝타이틀은 곧은 직선과 명쾌한 산체프리체와 강한대비를 주는 대문자 그리고 단순함과 대비의 극치라 할 수 있는 흑백의 무채색을 활용하여 장면을 반복적 영상의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도상과 지표 그리고 상징에 대한 기호의 의미생성과 작용에 있어 타이틀 시퀀스는 관음증, 긴장, 서스펜스, 폐쇄적, 반전, 불안, 은폐, 위장의 정서적 표현으로 카테고리화하여, 본 영화의 특징과 상징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림 9] <싸이코> 오프닝 시퀀스 기호에 대한 의미작용과 이미지

#### 4. 결론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솔바스는 초기에 광고디자인을 했던 것처럼, 영화 오프닝타이틀 제작에 디자인적 사고를 활용하여, 즉 선의 형태와 색상의 대비를 통해 오프닝타이틀을 제작한다. 솔바스는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픽 요소와 원리를 기반으로 기호학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구축하여 이미지들이 상호 의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처럼 솔바스는 단순히 타이틀 시퀀스를 표피적인 의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체로서 상호작용하고 연계하여 작용함으로써 함축되어진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분석되어진 시퀀스는 대부분 영화 속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그래픽 요소와 단순한 색상만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예컨대 솔바스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요소인 선을 이용하여, 그것이 작용하였을 때 전달되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영화 속의 주제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선 이외에도 색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고스란히 영화의 메시지와 컨셉에 부합시켜 오프닝타이틀이 내포하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화면구성은 반복적인 영상구조를 형성하여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 솔바스는 화면의 구성을 결합과 해체, 반복과 율동, 대칭과 비대칭으로 구성하여, 미학적으로 유희적이며 심미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디자인적 요소인 선과 색상의 연구에 국한되어 기호학적으로만 의미를 분석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오프닝타이틀에서 드러나는 선과 색상의 기호적 의미를 관객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즉 기호학을

포함한 화용론의 측면에서 관객의 인지작용이나 오프닝타이틀의 발화행위 메커니즘 등의 연구로 확대·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길훈, 김 건 (2007). 국내외 영화마케팅에 있어서 영화포스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39.
- 김 건 (2007). 국내 영화마케팅에서 영화예고편 활용에 관하여. 『문학과영상』, 8(1).
- 김 건 (2012). 영화 속 엔딩 크레딧 : 쿠키 영상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8.
- 김석태 (2003). 『영상인식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 김치수 외 (2006). 『현대 기호학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학성 (1995).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 김훈철, 장영렬 (1991). 『감성시대의 칼라마케팅』. 사민서각.
- 마리아 니콜라예바 외 (2001). 『그림책을 보는 눈』. 마루별.
- 문경아 (2006). 「국내 영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에 나타난 색채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원 (2003). 『광고 디자인의 기호학』. 범우사.
- 박영원 (2008). 롤랑 바르트의 이론과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광고의 의미 작용 분석. 『한국콘텐츠학연구』, 8(3).
- 박효신 (2008). 『영상디자인의 선구자 솔바스』. 디자인 하우스.
- 송민정 (2006). 『레이아웃의 모든 것』. 예경.
- 스에나가 타미오 (2003). 『color는 doctor』. 박필임 옮김. 예경.
- 스테판 샤프 (2008). 『영화구조의 미학』. 이영광 옮김. 울력.
- 안상원 (2012). 『히치콕의 현기증에 나타난 화자』. 미학, 72.
- 오병권 (1999). 『디자인과 이미지 질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오호준 (2007). 영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표현구성. 『디자인학연구』, 20(4).
- 존 맥웨이드 (2012). 『How to Design Cool Stuff』. 영진닷컴.
- 진경아 (2008). 카일쿠퍼 오프닝타이틀에 나타난 공포이미지 표현 연구. 『디자인학연구』.
- 한석우 (1991). 『입체조형』. 미진사.

- B. 클라인트 (1994).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 IRI 색채연구소 (2013). 『디자인보다 아름다운 컬러』. 영진닷컴.